

# PC통신으로 농림수산정보 이용하기

박 성 혜

((재)농림수산정보센터)

현대사회에서 정보는 부와 권력을 의미하는 말로도 통한다. 누가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입수하느냐에 따라 부와 권력의 구도가 바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에 농림수산 정보를 얻는 방법은 작목반이나 농촌지도소, 농협 등에 가서 직접 사람을 만나 입수하거나 신문, 방송 혹은 전문서적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용 컴퓨터의 광범위한 보급과 함께 의사통로의 수단으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정보검색이 새로운 정보 획득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 PC통신, 언제 어디서든지 정보 검색 가능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농업정보 검색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정보 획득 방법보다 훨씬 유리하다. 즉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 정부의 농림어업 지원사업이나 유통정보, 종자정보나 각종 통계 정보 따위를 어렵지 않게 받아볼 수 있다. 또한 농어민들끼리

컴퓨터를 이용해 농업기술이나 작목에 관한 영농정보를 교환할 수도 있고, 농업정책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나눌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용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와 모뎀, 전화회선, 그리고 통신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컴퓨터 통신'이란 전화기 대신 컴퓨터로 전화회선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모뎀은 기존의 전화선을 이용하므로 이쪽 컴퓨터의 신호를 전화선을 이용할 수 있는 신호로 바꿔주고 다시 저쪽 컴퓨터에서는 컴퓨터 신호로 되바꿔 주는 장치를 말한다. 컴퓨터에서 어떤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듯이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통신용 프로그램은 시중에 여러개가 유통되고 있으나 보통 '이야기', 'DL 2', '하이콤' 등이 많이 쓰인다. 그러나 컴퓨터 통신만하기 위해서는 전화국에서 전화가입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 하이텔 단말기만 있어도 충분하다. 하이텔 단말기에서는 컴퓨터 통

신에 필요한 장비인 모뎀도 붙어 있어 전화선만 연결하면 곧바로 컴퓨터 통신을 할 수 있다.

컴퓨터 통신을 통해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천리안이나, 하이텔, 아피스(AFFIS : 농림수산물정보) 등 해당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서비스망에 가입해야 한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본인이 정한 개인의 회원 고유번호(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는다.

PC통신 이용요금은 매월 일정요금을 내는 정액제와 사용한 시간에 따라 내는 종량제가 있다. 하이텔은 정액제로 매월 9천9백원을 납부해야 하고 천리안만 종량제와 정액제로 혼합해 부과하고 있는데 기본요금인 기본정보 10시간 사용까지는 월 6천원을 부과하고 10시간 초과 이용부터는 시간당 1천원씩 초과되며, 증권시세 등 부가정보를 이용할 때는 해당 정보를 이용한 만큼의 이용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농어촌정보화 사업 전담기관인 (재)농림수산물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림수산물야 전문 정보서비스망인 아피스(AFFIS)는 별도의 회원가입비와 정보이용료를 받지 않고 있다. 단, 어느 서비스망을 이용하든지 1분에 40원씩의 전화요금은 따로 지불해야 한다. PC통신 전용 전화번호인 01410(한국통신의 하이넷-P 접속번호)과 01420(데이콤의 DNS접속번호)으로 연결하면 지방에서도 시내전화요금으로 연결되며, 30%의 할인 혜택이 있고, 심야 할인 시간대(오후 9시~오전 6시)에는 추가로 50%를 더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01410은 패킷통신망 사용료를 낮추는 분당 3원씩, 일요일 24시간을 포함해 평일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분당 1.5원씩 전화요금과 합산해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01410 이용자들은 전화요금 외에 망 사용료 부담이 생겨 하루 한시간씩 이용할 경우 한달에 최고 5,400원까지 추가로 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 농림수산물정보망 AFFIS에 접속하는 방법

이제 농림수산물정보에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PC통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컴퓨터 전원을 켜고 후 이야기, DL2 등 통신용 프로그램을 작동시킨다. 그리고 모뎀이 작동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에 'ATZ'를 입력한다. 모뎀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통신이 가능하게 되면 화면에 'OK'가 떨어진다. 그러면 통신접속 전화번호 01410 또는 01420을 입력한다. 컴퓨터에 모뎀이 2400bps의 속도로 연결되었음을 알려주는 connect 2400이란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나면 통신을 할 수 있다.

AT	Enter >
OK	Enter >
ATDT 01410 또는 01420	Enter >
CONNECT 2400	Enter >

통신접속번호를 01410으로 연결했을 경우 초기화면이 나오면 8번 기업/무역/농수산을 선택하신 후 다시 37001번 농림수산물종합정보서비스를 선택한다. 통신접속번호를 01420으로 연결했을 경우에는 12번 농림수산물정보를 선택한다.

이상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여러분은 이제 농림수산물전문 정보 부가가치통신망인 AFFIS VAN에 연결된 것이다.

농림수산물정보망에 연결되면, 농림수산물정보 회원 ID와 비밀번호란에 개인보유 ID를 입력한다. 회원번호가 없을 경우 회원ID에서 GUEST를 입력하면 임시로 농림수산물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회원ID와 비밀번호를 결정해 농림수산물정보센터에 신청한다.(전화문의 02-589-2042/3) 회

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 농림수산정보서비스망인 AFFIS에 접속되면 공지사항이 첫 화면으로 나오는데, 공지사항중 관심있는 내용의 번호를 입력하고,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농림수산정보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그냥 엔터키를 친다.

농림수산정보 서비스망에는 중앙농정, 유통/통계, 뉴스/인물/문헌, 자재/상품/수산, 지역/기관/단체 등 농업전반에 걸친 각종 농업정보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정보를 소개한다면 [중앙농정]코너에는 농림수산부에서 발표하는 각종 보도자료와 농림수산통합실시요령, 행정규제 완화해설, 입법예고되는 법안 등의 자료와 농림수산부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게시판 기능이 있는 농림수산부 광장과 해외농무관들이 보내주는 세계농업동향 및 WTO소식 등의 정보가 구축되어 있고, [유통/통계]코너에는 전국 가격정보와 축협 한우리정보에서 제공하는 축산물 경락가격을 볼 수 있고,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가격, 거래량 정보가 그림과 그래프로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다.

[뉴스/인물/문헌]코너에는 한국농어민신문, 농수축산신문과 월간 상업농경영 등의 잡지를 신속하게 볼 수 있고, 전국의 농림어업전문경영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면 인터넷망을 통해 수집한 농업정보를 소개하는 인터넷 농업정보 코너 등이 있다. [지역/기관/단체]코너에는 전남·전북·경북도청에서 제공하는 지역 정보서비스, 도드람양돈정보(GO DODRAM), 육류수출입정보(GO MEAT), 동물정보서비스, 육류수출입정보(GO MEAT), 동물의학정보(GO VAT) 등이 구축되어 있고, [자재/상품/수산]정보에는 농자재정보, 품질인증농수산물, 수산정보 등이 있으며 자재정보에는 농기계정보와 축산기

자재정보 등이 구축되어 있다.

## 상설 교육장에서 컴퓨터 교육 연중 실시

한편 (재)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는 정보서비스망 운영외에 농어민들의 효율적인 정보이용을 돕기위해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신천관광농원 내 상설교육관을 마련하고, 오는 3월부터 농어민, 농어민후계자, 농고생, 품목별농어법인 농업기관·단체직원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의 합숙 농어민 정보통신 이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기초과정(2박3일), 전문과정(4박5일), 정보화교육과정(3박4일), 경영교육과정(4박5일), 경영정보화과정(5박6일)으로 나누어 PC개요부터 문서 작성, 정보통신 활용, 농업용S/W 활용, 세무·회계·경영분석·경영관리 S/W 활용까지 교육하게 되는데 1기당 40명씩 선착순 접수를 받고 있다(교육문의 02-589-2046/7). 상업농 시대에는 과거와 달리 농사를 짓기 위해서도 정보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전업농들이 영농규모가 커지고 상업농의 성격을 띠게 됨에 따라 농업에도 과학적인 경영이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최신 기술의 습득이 영농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제는 농림수산업에도 어떻게 농사짓는가의 “노하우(know-how)”보다 숨어있는 정보를 잘 찾아내는 “노웨어(know-where)”가 중요한 때이다.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습득해야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재)농림수산정보센터는 매년 농어민컴퓨터 영농교육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농업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농업인들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